

2017년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마 책형)

1.
 - ㉠ 설총, ㉡ 최치원으로 모두 6두품이다. 신라의 골품제는 골품에 따라 관직 승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다. 진골은 1관등~17관등에 모두 임명될 수 있지만, 6두품은 6관등 아찬, 5두품은 10관등 대나마, 4두품은 12관등 대사까지만 승진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골품제의 폐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찬에는 사중아찬까지, 대나마는 구중대나마까지, 나마에는 칠중나마까지 중위제를 두었으나 골품제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오답 확인]
 - ㉢, ㉣, ㉤ 모두 진골에 대한 설명이다.
2.

(가)는 고구려의 4세기 미천왕의 업적이고 (다)는 고구려의 5세기 장수왕의 업적이다.

ㄱ.태학 설립은 소수림왕의 업적으로 (나)에 해당한다. ㄴ.신라를 도와 왜구를 격퇴한 것은 광개토태왕의 업적으로 (나)에 해당한다.

[오답 확인]

ㄴ.진대법 도입은 2세기 후반 고국천왕의 업적이다(194). ㄷ.천리장성은 7세기 영양왕 때 축조를 시작해서 보장왕 때 완성되었다(631~647)
3.

조선의 오가작통제에 대한 설명이다. 오가작통제는 조선 초기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여 「경국대전」의 완성과 더불어 더욱 정비되어 법제화되었다. 오가작통제는 향촌 통제를 위한 것으로 강도·절도방지, 풍속의 교화와 유민방지, 호적 작성에 있어서의 탈루자(농민의 도망과 이탈) 방지, 부세와 균역의 안정적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실제 시행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숙종 때 윤희의 건의에 따라 비변사에서 ‘오가작통사목’ 21개조를 제정하면서 전국적인 실시가 강행되었다.

[오답 확인]

ㄷ.재지사족 중심의 향촌 자치 활성화를 위해 조직된 것은 유향소나 향약, 서원 등이다. ㄴ.향권을 둘러싼 구향과新乡 간의 향전을 억제하기 위해 영조와 정조 연간에 향전을 금지하는 조치를 반포하기도 하였다. 오가작통제와 향전 억제와는 관계가 없다.
4.

제시문은 1921년 2월 초 박은식·원세훈·김창숙 등 14인이 발표한 <아 동포에게 고함>이란 선언이다. 당시 베이징에서 활동하던 박용만·신숙 등의 인사들이 군사통일주비회를 조직하여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하는 등 국민대표회의 소집을 위한 노력이 다방면에서 전개되고 있었다. 국민대표회의는 1923년 1월 3일에 개막되어 국내·상하이·만주일대·북경·간도일대·노령·미주 등지에서 120여 개의 단체, 120여 명의 대표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국민대표회의는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해야 된다는 창조파와, 임시정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개편, 보완하여야 한다는 개조파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난항을 거듭하다가 결렬되었다.

[오답 확인]

 - ①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이 파견된 것은 1919년의 일이다.
 - ②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 강령은 1941년에 발표되었다.
 - ③ 한국국민당은 1935년에 조직되었다.

5.

기해예송(1659)은 효종이 사망하자 자의대비의 복상 기간을 두고 서인의 1년설과 남인의 3년설이 대립하였으나 서인의 1년설이 채택된 것이고, 갑인예송(1674)은 효종의 비인 인선왕후 장씨가 사망하자 자의대비의 복상 기간을 두고 서인의 9개월설과 남인의 1년설이 대립하여 남인의 1년설이 채택된 사건으로 모두 현종 대에 일어난 사건이다. 따라서 ③번이 옳은 내용이다.

[오답 확인]

- ① 현량과는 중종 때 조광조가 실시한 개혁 정책이다.
- ②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는 연산군 대에 일어난 사화이다.
- ④ 신해통공(1791)은 정조가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한 것이다.

6.

제시문은 동예에 대한 것이다. 동예는 군장국가 단계에서 멸망했는데 후·읍군·삼로 등의 군장이 다스렸다.

[오답 확인]

- ② 삼한에는 소도가 있었고 천군이 소도에 살면서 제사를 주관하는 제정분리 사회였다.
- ③ 골장제와 가족 공동묘는 옥저의 장례 풍습이다.
- ④ 편두 풍습은 삼한 지역에서 행해진 풍습으로 『삼국지』 위서동이전에는 진한의 풍습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아이를 낳으면 돌로써 그 머리를 눌러 모난 머리로 만드는 데 지금의 진한인 모두 편두이며, 남자와 여자는 모두 일본과 같이 문신을 한다”는 내용이 전해진다. 가야 지역의 고분에서 편두로 보이는 유골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7.

제시문은 독립협회가 주관한 관민공동회에서 결의(1898년 10월)한 ‘헌의 6조’이다. 따라서 1898년 10월 이후에 일어난 사실을 찾아야 한다. ③ 광무개혁 시기 원수부가 설치된 것은 1899년이다.

[오답 확인]

- ① 독립신문은 1896년 4월에 창간되었다.
- ②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것(아관파천)은 1896년 2월이다.
- ④ 군국기무처는 1차 갑오개혁을 주관한 기구로 1894년 6월 25일에 설치되어 2차 갑오개혁으로 폐지되었다(12월 17일).

8.

제시문은 고려 우왕 3년(1377)에 최무선에 의해 설치된 화통도감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우왕 대에 있었던 사실을 찾으면 된다. ② 청주 흥덕사에서 직지심체요절이 간행된 것은 1377년이다.

[오답 확인]

- ① 복원궁은 고려 예종 대 설치된 도교 사원이다.
- ③ 교장도감은 교장(속장경)의 간행을 위해 의천이 요청에 따라 선종 3년(1086)에 설치하였다.
- ④ 시무 28조는 최승로가 고려 성종에게 제출한 국정 개혁안이다.

9.

임오군란(1882) 이후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자 김옥균 등 급진 개화파 인물들은 청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갑신정변(1884)을 일으켰다. 그러나 정변은 실패로 돌아가고 조선은 일본과 한성조약을 체결하여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였고 청과 일본은 텐진조약을 체결하여 양국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하고 이후 파병 시 서로 통지하기로 하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한편 청의 내정 간섭 심화로 조선 정부도 청의 간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비밀 협약을 추진하였는데 청의 방해로 실패로 돌아갔다. 이러한 러시아의 남하 정책 의도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은 1885년 4월

부터 약 2년간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고 포대를 설치하여 러시아를 견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영사 부들과 유길준 등은 한반도 중립화론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반영이 되지는 못하였다.

[오답 확인]

③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임오군란 직후에 체결되었다(1882. 8)

10.

② 1900년에 반포된 '대한제국 칙령 41호'는 제1조에는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島監)을 군수로 개정", 제2조에는 "...지역은 울릉전역과 죽도·석도를 관할"한다고 고시했다. 한편 일본인 하야시 시헤이는 1785년 「삼국통람도설」이라는 지리서를 편찬하면서 부도로 '삼국접양지도'를 실었는데 직접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 것'이라고 적어냈다.

[오답 확인]

① 이범윤의 보고서는 간도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이범윤은 1902년 간도시찰원으로 파견되었다가 1903년 간도관리사로 임명되었다. 「은주시정합기」는 1667년 일본인 사이토 호젠이 편찬한 것으로, 일본인이 기록한 독도 관련 최초의 기록이다. 책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해석차이가 존재하기도 한다.

③ 미쓰야 협정은 만주 군벌과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미쓰야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만주 지역의 한인 독립군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다(1925). '시마네 현 고시 제 40호'는 1905년 2월 22일 일본이 일방적으로 독도를 시마네현에 포함시킨 것을 고시한 문서이다.

④ '조선국고제시말내탐서'는 일본의 태정관과 외무대신이 조선의 내정을 조사하기 위해 외무성 관료들을 1870년 조선에 파견하면서 14개 항의 항목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이다. 지시 사항 중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 영토로 되어 있는 시말을 조사하라는 지시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보고서를 받아본 태정관은 1877년 3월 29일 '태정관 문서'를 통해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하였고 관련 내용을 4월 9일에 시마네현에 내려 보냈다. 한편 조선과 청 사이에서 토문강의 해석 문제로 인한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하자 조선 정부는 1883년 어윤중을 서북경략사로 파견하여 청에 항의하였고, 1885년에 이중하를 토문감계사로 파견하여 간도가 조선 영토임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후 이범윤이 1902년 간도시찰원으로 파견되었다가 1903년 간도관리사로 임명되었다.

11.

제시문에서 설명하는 화폐는 고려 숙종 때 조조된 은병(활구)이다. 그러므로 고려 시대 경제 상황을 찾으면 된다.

③ 고려 시대에는 개경, 서경, 동경 등 대도시에서 서적점·주점·다점 등의 관영 상점을 운영하였다.

[오답 확인]

① 청해진은 신라 하대 흥덕왕 대에 장보고가 설치하였다.

② 동시전은 신라 지증왕 대에 설치되었다.

④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된 것은 조선 후기이다.

12.

제시문의 밑줄 친 인물은 정도전이다. ④ 정도전은 재상중심의 정치를 주장하였고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불씨잡변」, 「심기리편」 등을 편찬하였다.

[오답 확인]

① 쓰시마 섬 정벌은 고려 창왕 대 박위(1389), 조선 태조 대 김사형(1396), 조선 세종 대 이종무(1419)에 의해 이루어졌다.

② 「삼강행실도」는 조선 세종 대 설순 등이 왕명에 의해 편찬한 윤리의례서이다

③ 여진족을 두만강 밖으로 몰아내고 6진을 개척한 것은 조선 세종 대이다. 세종은 김종서를 함길도 도절제사로 임명해 1434년(세종 16년)부터 10년에 걸쳐 6진을 개척하여 우리나라 북방의 영토가 압록강~두만강 연안까지 이르게 하였다.

13.

미국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주들은 일찍부터 중국인, 일본인 노동 이민을 추진했는데 일본인 노동자의 비율이 너무 높아지자 한국인 노동 이민을 추진하게 되었다. 농장주들은 대표로 비숍을 한국에 보냈고 비숍은 주한 미국 공사였던 알렌을 중간에 세워 고종으로부터 하와이 노동 이민단의 모집을 허락받게 되었다. 이후 미국인 선교사들이 교회와 개항장을 중심으로 하와이는 지상낙원이라는 식의 과장된 광고를 하면서 이민자들을 모집하였고 1903년 1월에 최초의 한국인 이민단이 하와이에 도착하였다(공식적 이민단이 아닌 개별적 하와이 이민자들도 그 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광고와는 달리 너무나도 가혹한 노동 조건과 노예와 같은 처우로 인해 국내에서 하와이 이민을 중지해야한다는 신문 기사들과 주장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럼에서 1905년 7월에 노동 이민 금지령이 내려지기까지 하와이 노동이민은 지속되었다. 일부의 노동 이민단은 중개 회사에 속아 멕시코로 가기도 했고 그 중 일부는 쿠바에 정착하기도 했다. 하와이 이민을 간 한국인 남성들은 배우자를 찾지 못해 국내의 처녀들과 결혼을 추진했고, 국내의 처녀들은 남편의 사진만 보고 하와이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남편 될 사람의 젊은 시절 사진만 보고 하와이로 갔다가 아버지 뺄 되는 남자를 보고 자살하거나 도망 다니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④ 대조선국민군단은 박용만이 1914년 6월 하와이에서 설립한 무장 항일 운동 단체이다.

[오답 확인]

- ① 한홍동은 북만주 밀산에 건설된 한인 자치촌이다. 이상설·이승희 등이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을 이주시키고 한민 학교(연해주의 한민 학교와 구분)를 건설하기도 하였다.
- ② 권업회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설립된 한인 자치 기관으로 의병 계열과 애국 계몽 운동 계열이 합작으로 조직한 것이다. 권업신문을 발간하고 한민 학교·대전 학교 등을 설립하였다.
- ③ 경학사는 이회영·이시영 등이 신민회·대종교 인사들과 함께 서간도 삼원보에 설립한 최초의 자치 단체로 학교로는 신흥 강습소를 설치하였다. 이후 경학사는 부민단, 한족회로 개편되었으며 상하이 임시정부와 연합하여 서로 군정서를 조직하였다. 신흥 강습소는 신흥 무관학교로 개칭되었다.

14.

제시문은 홍대용이 「의산문답」에서 주장한 지전설과 무한우주론이다. ③ 홍대용은 「임하경륜」에서 성인 남자에게 2결의 토지를 나누어 주자는 균전론을 주장하였다.

[오답 확인]

- ① 유수원에 대한 설명이다.
- ② 유형원에 대한 설명이다.
- ④ 박제가에 대한 설명이다.

15.

제시문은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 조치에 대한 것이다.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의 주장자인 러시아 황제가 비밀리에 고종에게 초청장을 보내왔고 미국인 험버트 등의 도움으로 고종은 이준·이상설·이위종을 특사로 파견한다. 이들은 1907년 6월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했으나 열강의 비협조로 회의에 참석하지는 못하고 신문 기자단에게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결의안이 채택되는 데 만족해야했다. 일제는 이 사건을 이유로 고종을 강제 퇴위 시켰고(1907년 7월 20) 순종에게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의 체결을 강요하였다(1907년 7월 24일). 또한 한·일신협약 체결과 함께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에 반발하여 정미의병이 봉기하였는데, 병력과 무기 및 전술의 향상을 기반으로 13도 창의군을 조직(1907년 9월)하여 서울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 1908년 1월 이인영은 먼저 각국 공관에 의병부대를 국제 공법상의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격문을 보내는 한편, 군사장 허위가 이끄는 3백 명의 선발대가 동대문 밖 30리까지 진격하여 일본군과 혈전을 벌였으나 후속부대의 지원이 없어 퇴각하고 말았다. 이때 부친상을 당한 총대장 이인영은 3년상을 위하여 지휘권을 허위에게 맡기고 귀향해버렸다. 이후 일제는 서울 진공 작전 이후 호남 의병 소탕을 위해 남한 대토벌 작전을 전개하였다(1909).

[오답 확인]

- ㄱ. 신돌석은 을사의병 때 최초의 평민 의병장으로 참여하였다. ㄴ. 단발령의 실시로 일어난 의병은 을미의병이다.

을미의병은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유생 의병장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16.

ㄴ. 1차 한일 협약(1904. 8.)에 의한 고문 정치 실시 → ㄱ. 고종 황제 강제 퇴위(1907. 7. 20) → ㄷ. 한일신협약(1907. 7. 24) → 기유각서(1909)

17.

제시문은 조선 후기 광산 개발과 관련된 내용으로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이 아닌 것을 찾으려면 된다.

① 사패(賜牌)는 토지 수여 증서인 동시에 개간 허가서라고 볼 수 있으며, 사패전(賜牌田)은 공을 세운 신하에게 준 공신사패전과 토지 개간을 목적으로 준 개간사패전이 있었다. 전자는 공신전의 일종으로서 개간된 땅을 주었으며, 조선 초기까지도 사패를 통해 공신전을 지급하였다. 후자는 원 간섭기에 특징적으로 나타난 사패전으로, 몽골과의 장기간의 전쟁 과정에 황폐해진 토지를 신속하게 개간할 목적으로 지급하였다.

[오답 확인]

- ② 조선 후기에 지주-전호 관계에서 정률 지대인 타조법 외에 정액 지대 방식의 도조법이 나타났다.
- ③ 면화, 담배 등의 상품 작물의 재배가 이루어진 것은 조선 후기이다.
- ④ 밭농사에서 밭고랑에 파종하는 견종법이 보급된 것은 조선 후기이다.

18.

제시문은 묘청이 서경 천도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묘청은 풍수지리설에 근거해 서경 천도와 금국 정벌, 칭제건원 등을 주장하였다.

- ① 서경에 궁궐 공사를 하던 중 서경 천도가 취소되자 묘청은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1135년 서경 천도 운동).
- ② 문종은 남경 길지설에 근거해 3경 중 동경을 제외하고 남경을 추가하였다.
- ③ 남경 길지설에 근거해 공민왕과 우왕 때 한양 천도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다.

19.

「조선민족사 개론」은 손진태가 저술한 책이다. 진단학회의 주요 회원이기도 하였던 그는 ‘신민족주의사관’에 입각해서 「조선민족사개론」(1948)과 「국사대요」(1948)를 저술하였다.

신민족주의사학은 민족주의사학과 사회·경제사학, 실증사학 등을 바탕으로 하여 광복 이후 이념과 계급을 초월한 민족통일국가로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안재홍, 손진태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창되었다. 신민족주의의 핵심은 민주주의 성취를 통한 계급과 계층 간의 대립과 반목 해소와 타민족에 대해서는 배타적 민족주의를 지양한다는 것이다. 안재홍이 계급을 초월한 통합민족국가를 목표로 내세웠다면 손진태는 계급 간의 화해를 전제로 한 계급 평등 실현을 강조하였다. ③ 손진태는 「진단학보」를 발간한 진단학회의 발기인으로 활동하였다.

[오답 확인]

- ① 「조선상고사」와 「조선사연구초」를 저술한 것은 신채호이다.
- ② 대동사상을 수용한 유교 구신론을 주장한 것은 박은식이다.
- ④ 「5천년간 조선의 열」을 동아일보에 연재한 것은 정인보이다. 1935년 1월 1일부터 1936년 8월 29일 동아일보가 정간될 때까지 연재되었던 것을 광복 이후 서울신문사에서 「조선사연구」상(1946.9)·하(1947.7) 두 권으로 간행하였다. 내용은 단군조선부터 삼국시대까지의 역사를 특정한 주제를 정해 통사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20.

고려 시대 의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이다.

- ① 청천강변에 위치하며 고려 시대 안북도호부가 설치된 곳은 의주가 아니라 안변이다.

[오답 확인]

② 강동 6주는 거란의 1차 침략(993)을 서희의 담판으로 물리친 이후 현재의 평안북도 해안지방에 설치한 지역으로 흥화진(興化鎭:의주)·용주(龍州:용천)·통주(通州:선천)·철주(鐵州:철산)·귀주(龜州:구성)·곽주(郭州:곽산)을

말한다.

③ 각장(榷場)은 고려 시대 거란이나 여진족 등 북방 민족과의 교역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거란과의 각장은 목종 때 처음 보주(保州 : 후에 의주로 개칭)에 설치되었다(1005)

④ 고려의 북진정책은 서북면과 동북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서북면 지역의 북진정책은 거란의 남침을 저지하려는 군사적 의도와 결부되어 주로 강력히 추진되었는데 정종~성종 연간에 이미 청천강 이북의 많은 요지에 성곽을 축조하였다.

993년 거란의 1차 침략 당시 서희의 담판으로 강동6주를 수복하여 국경이 압록강 연안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 뒤 거란은 앞서 고려가 강동6주 획득 시 약속한 거란과의 통교를 실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2차 침입(1010) 때에 약속한 현종의 친조도 이행하지 않자 여러 차례 강동6주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고려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거란의 3차 침략을 격퇴한 후 거란은 고려의 강동6주 인정하는 듯 보였으나 여진과 송나라의 교통을 끊기 위해 압록강 하류에 내원성(來遠城)을 구축하고 또한 강동6주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압록강을 넘어 고려의 영토인 강동 땅에 보주성(保州城 : 현재의 의주)을 쌓으면서 갈등을 겪게 되었다.

1115년(예종 10) 여진족이 금(金)을 건국하자 고려는 사신을 보내어 금나라의 전승을 축하하는 동시에 보주가 본래 고려의 영토임을 인식시키고 환수를 요구해 금의 양해를 얻었고 또한 내원성을 지키는 요나라의 장군이 성의 함락 직전에 내원·보주 두 성의 접수를 요청해 왔으므로 고려는 곧 두 성을 점령하였다.

내원성의 점령후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보주성은 이름을 고쳐 의주방어사로 삼았다. 압록강이 서북면에서 고려의 국경선으로 확정된 것은 이때 이후이고 그 뒤 지금까지 원나라에 의한 동녕부 설치 등으로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한편 동북면에 대한 북진 정책은 윤관의 동북 9성 축조와 공민왕의 쌍성총관부 수복 등으로 이해하면 된다.